

남녀대학생의 SNS 활용유형 차이 검증 :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임 걸*

요약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SNS 활용유형 차이를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13학년도 1학기 기준 서울 소재 K대학교 학생 4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4영역과 16개 요소로 구성된 선행 이론연구의 틀이 본 연구의 도구로서 적용되었다. EQS 구조방정식 통계패키지를 통한 적합도 확인 결과, 남녀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로 관계도모, 정보유통, 협업, 피드백의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 탐색을 위한 형태·측정·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남성집단은 관계검색과 교류활동, 그리고 제작과 공유활동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여성집단의 경우 남성집단과 유사하게 제작과 공유활동이 높은 상관성을 보임은 물론, 정보유통 요인이 지식구성활동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드러냈다. 제언으로서, 남녀의 SNS 활용은 정보격차가 아닌 활용차이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타당하였으며, 향후 성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SNS 개발 및 적용 전략이 요구되었다.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 among College Students

Keol Lim*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male college students and female ones in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s(SNSs) by conduct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research, a total of valid 496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with the research questionnaire having 4 factors and 16 related elements. From the EQ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atistics package, both males and females showed similar purposes of using SNSs such as relationships, information distribution, collaboration, and feedbacks with appropriate goodness of fit indices. Configural, measurement, and structural invariance testings indicated that both searching friends/socializing activities and producing/sharing information we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among males. Producing and sharing information were also related each other and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factor was closely connected to knowledge building activities among females. As suggestions, an approach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rather than gender gaps, should be highlighted in the use of SNSs so that appropriate development and usage strategies should be facilitated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Key Words : Social Network Services, Gender Differences, College Student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variance

*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gklim01@konkuk.ac.kr)

· 제1저자(First Author) : 임걸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임걸

· 접수일(2013년 7월 31일), 수정일(1차 : 2013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2013년 10월 10일)

I. 서 론

고전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던 전화와 같은 매체의 발전이 온라인으로 이전되고, 이메일이나 채팅 등을 거쳐 다자간에 대규모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며 삶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웹 2.0 시대를 맞아 정보의 개방, 공유, 참여, 활용 등의 가치가 확대되고, 스마트 기기 보급 등의 환경적 여건이 SNS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SNS는 실시간/비실시간, 동영상/문자, 개방형/폐쇄형, 단문/장문, 일상적/학술적 등 여러 특성과 목적을 지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이들 SNS로부터 온라인 상에서 관계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며, 타인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한편, SNS와 같은 온라인 의사소통 도구의 대중화는 그간 테크놀로지 및 컴퓨터 기기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여성 계층의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1, 2]. 따라서 남녀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SNS의 다양한 활용 형태를 규명하고, 남성과 여성의 활용 형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SNS의 지속적 발전을 비롯하여 남녀 정보격차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SNS 활용 및 유형

SNS는 사람들간에 사회적 연결망이나 관계를 형성

하여 관심, 활동, 경험, 실생활의 연결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사용자, 사회적 관계, 다양한 추가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3].

사람들 간의 연결을 통한 관계형성이라는 의미를 광의로 해석할 때 전화나 이메일 등의 개체나 기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사회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NS는 보다 협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즉, 특정한 웹사이트들 및 그들의 특징으로 구성된 집합체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SNS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이다. 2004년 2월 설립된 페이스북은 2013년 5월 현재 11억여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4]. 국내에서도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은 매우 대중화된 SNS가 되었다[5]. 한편, 트위터는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형태로서 주로 단문 중심의 온라인 의사소통을 위한 SNS로 시작되었다. 2006년 3월에 시작된 트위터는 2013년 2월 현재 약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6].

이와 같이 SNS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과 영향을 미치며 대중화된 매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SNS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Gartner[7]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위키 등의 협업(social collaboration), 유튜브와 같은 출판(social publishing), 그리고 플리커 등과 같은 피드백(social feedback)으로 활용 유형을 나누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카페·클럽·인터넷 동호회, 블로그·미니홈피, 인스턴트 메신저, 인맥관리 서비스, 가상현실 서비스 블로그의 5가지로 SNS를 구분하였고[8], 이후 커뮤니티,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마이크로블로그 등 4가지 영역으로 SNS의 유형을 조정하기도 하였다[9].

한편, SNS의 활용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현재

운영되는 SNS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도모, 정보유통, 협업, 피드백의 4요인과 각각의 세부내용들이 정리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10].

2.2 남녀의 테크놀로지 활용차이

전통적으로 테크놀로지 및 컴퓨터 활용에 있어 남녀의 성차에 따른 불균형이 있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다[11, 12].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사회 및 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된 불평등의 결과로서 보는 시각들이 우세하다[13, 14]. 이에 따라, 여성들이 테크놀로지 및 컴퓨터 활용에 대한 태도나 자신감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왔고,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가 발생한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터넷이 급격히 대중화 되는 등 컴퓨터 환경이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와 더불어 격차의 양상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15, 16]. 이 변화의 형태는 여성들의 소셜 네트워킹이나 의사소통의 욕구가 온라인에서 발현되어 보다 활발한 테크놀로지 및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1, 2]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사회적으로 대중화된 SNS는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던 남녀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불균형된 시각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NS는 여성들의 컴퓨터 활용 친화도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보편적 현상을 맞이하는 바, SNS로 인한 정보격차의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주제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SNS의 이용정도에 차이가 발견된 연구가 있었으며[17], 중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마이크로블로그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사례도 보고되었다[18]. 한편, 유학생들의 정보탐색활동을 위한 SNS 활용연구에서 남녀에 따른 이

용행태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도 하였다[19].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SNS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SNS의 활용 형태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조방정식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정보격차 연구의 다음단계로서, 성별에 따른 테크놀로지 활용양상 비교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기와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수립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집단의 SNS 활용유형 결과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 검증 및 모형을 구성한다.

둘째, 여성집단의 SNS 활용유형 결과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 검증 및 모형을 구성한다.

셋째, 남성 및 여성집단별 활용유형 모형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2013년 1학기 현재 서울 소재 K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를 통해 설문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에 응한 총 인원은 503명 이었으며, 남성은 282명, 여성은 221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 및 미응답으로 인한 결측치 등을 제외하고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상은 남학생 276명, 여학생 220명으로 총 496명이었다. 이들 전공은 인문사회 영역 189명, 자연이공 영역 237명, 예체능 57명, 기타 (융합영역 전공) 4명이며, 연령분포는 19세부터 33세까지였다. 연구 대

상의 인구통계학적 구성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대상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76	55.6
	여성	220	44.4
전공	인문사회	189	39.9
	자연이공	237	47.8
	예체능	57	11.5
	기타	4	.8
연령	-20세	103	20.8
	21-25세	293	59
	26-30세	97	19.6
	31세-	3	.6

3.2 연구도구

본 연구 수행을 위해 SNS의 활용요소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도구[10]가 채택되었다. 해당 선행연구의 도구가 본 연구도구로 채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집단기법(Normal Group Technique)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별로 산재되어 있는 SNS의 공통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SNS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분류하였다. 둘째,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SNS 기능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SNS 활용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셋째,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도구는 산재되어 있던 SNS 활용 목적에 대한 분석들을 종합하여 최신 SNS의 활용 동향 및 요소가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혼재되어 있던 SNS 활용목적들이 종합, 정리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상기 근거로 본 연구의 연구도구로서 채택된 SNS 요소 목록을 활용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도구
Table 2. Research instrument

영역	요소	설문 문항
관계도모 (F1)	관계검색 (v1)	친구찾기, 위치정보 등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관계 형성을 시도한다.
	관계형성 (v2)	친구맺기, 커뮤니티 가입 등의 방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교류 (v3)	자료공유, 문서작성, 통화, 선물보내기 등 교류활동을 한다.
	관계조정 (v4)	자료의 공개범위 설정, 친구 추가 및 끊기 등을 통해 관계의 범위를 조정한다.
정보유통 (F2)	제작 (v5)	유통을 위한 정보를 제작 및 작성한다.
	공유 (v6)	작성된 자료를 공개대상 설정, 태그 등을 써서 공유한다.
	확산 (v7)	공유된 자료가 리트윗, 퍼나르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
	보관 (v8)	공유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전환 및 보관시킨다.
협업 (F3)	정보생성 (v9)	협업을 위한 자료의 제시, 정보의 생성활동을 한다.
	정보교환 (v10)	사용자들간에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가공 (v11)	교환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재개념화 및 발전된다.
	지식구성 (v12)	협업의 결과로서 집단지성이 구현된다.
피드백 (F4)	문제제기 (v13)	문제상황이나 의문점들을 공동체에 제기한다.
	답변활동 (v14)	제기된 문제에 답을 내어 게시하는 활동을 한다.
	답변보완 (v15)	답변에 대해 긍정, 바로잡음, 보완 활동을 한다.
	가치부여 (v16d4)	문제의 답변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매긴다.

연구도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SNS 활용 요소로서 관계도모, 정보유통, 협업 그리고 피드백의 4가지 영역이 도출되었다. 해당 영역은 각 4가지 하위요소로 설명되어 총 16개 요소가 개발되었으며 각 요소를 설명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도모를 설명하는 요소는 관계검색, 관계형성, 교류, 관계조정이며 정보유통을 설명하는 요소는 제작, 공유, 확산, 보관이다. 또한 협업은 정보생성, 정보교환, 정보가공, 지식구

성으로 설명되며 피드백은 문제제기, 답변활동, 답변 보완 그리고 가치부여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3.2 연구방법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된 방법론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론 기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립된 잠재구인(latent constructs)과 항목(items)들의 관계 및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방법이 채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으로 정립된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CFA를 활용하여 남성 및 여성집단 응답결과의 적합도를 판정하였다. 다음으로 동일성(invariance) 검증을 통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응답 결과의 구조적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론 수행을 위해 SPSS 17.0 통계패키지와 EQS 6.0 구조방정식 소프트웨어가 활용되었다.

Satorra - Bentler (SB) scaled χ^2 , the robust CFI, the robust RMSEA 등을 포함한 robust maximum likelihood 방법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녀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다집단(multigroup) CFA가 실시되었다.

4.2 기본모형 결과

4.2.1 남성집단 결과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모형의 첨도(kurtosis)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goodness-of-fit) 판정을 실시하였다. 초기 모형의 다변량 LM Test 결과 두 개의 오차 공분산(E3, E1; E6, E5)이 높은 수준으로 단변량 LM χ^2 값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 이들을 상호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모형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4, Rho 계수=.95였다. 모형수정 사후 적합도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IV. 연구 결과

4.1 확인적 요인분석 개요

가설모형(hypothesized model)을 바탕으로 기본모형(baseline model)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적합성의 판단의 주요기준으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이 채택되었다[20, 21, 22].

모형에서 각종 변수(parameter)의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EQS에서 LM(Lagrange Multiplier) Test를 수행하였다[21]. 두 모형의 평가과정에서는 변수의 다변량 비정규성(multivariate non-normality)으로 인해

표 3. 남성집단 적합도 결과
Table 3. Goodness-of-fit results for males

Goodness-of-Fit summary for method = robust	
Satorra-Bentler scaled Chi-square = 154.0063 on 96 degrees of freedom	
Probability value for the Chi-square statistic is .00016	
Fit Indices	
Bentler-bonett normed fit index = .938	
Bentler-bonett non-normed fit index = .969	
Comparative fit index (CFI) = .976	
Bollen's (IFI) fit index = .976	
Mcdonald's (MFI) fit index = .900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 .047	
90% confidence interval of RMSEA (.033, .060)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Z 검정 결과 .05 수준에서 모든 요인 부하값과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표 4. 남성집단 표준화 요인부하량
Table 4. Standardized solution results for males

영역	요인	요인부하량	R ² 값
F1	v1	.768	.590
	v2	.773	.598
	v3	.856	.732
	v4	.456	.208
F2	v5	.680	.463
	v6	.748	.559
	v7	.766	.587
	v8	.639	.408
F3	v9	.866	.750
	v10	.934	.872
	v11	.846	.716
	v12	.854	.729
F4	v13	.784	.616
	v14	.850	.722
	v15	.780	.609
	v16	.791	.626

4.2.2 여성집단 결과

여성집단 역시 침도에 문제가 없었다. 적합도 판정 결과 초기 모형 결과 LM Test를 통해 F2와 F12와의 교차부하, E6과 E5의 오차공분산이 지적되었으며, 이들을 수용하여 모형이 재구성되었다. 수정모형의 Cronbach Alpha= .93, Rho 계수=.94였으며 적합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여성집단 적합도 결과
Table 5. Goodness-of-fit results for females

Goodness-of-Fit summary for method = robust	
Satorra-Bentler scaled Chi-square = 146.8845 on 96 degrees of freedom Probability value for the Chi-square statistic is .00065	
Fit Indices	
Bentler-bonett normed fit index = .917 Bentler-bonett non-normed fit index = .961 Comparative fit index (CFI) = .969 Bollen's (IFI) fit index = .970 McDonald's (MFI) fit index = .891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 .049 90% confidence interval of RMSEA (.032, .064)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으며, 여성집단 역시 모든 요인부하값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협업(F3)의 v12 항목은 정보유통의 교차부하량(.323)이 추가되었다.

표 6. 여성집단 표준화 요인부하량
Table 6. Standardized solution results for females

영역	요인	요인부하량	R ² 값
F1	v1	.693	.480
	v2	.855	.743
	v3	.713	.509
	v4	.502	.252
F2	v5	.690	.476
	v6	.680	.462
	v7	.844	.713
	v8	.642	.412
F3	v9	.896	.803
	v10	.948	.899
	v11	.909	.826
	v12	.471 (.323)	.545
F4	v13	.846	.716
	v14	.837	.702
	v15	.745	.554
	v16	.670	.449

4.3 남녀집단 차이검증

4.3.1 형태동일성 측정결과

첫째,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결과 CFI=.973, RMSEA=.048; 90% C.I.(.037, .058)로서 수집된 자료의 형태동일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활용유형의 구조는 두 집단 모형에서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구조로 표현된 것이 적절하였다. 이는 남녀의 SNS 활용방식이 동일한 4 요인으로 유사함을 의미한다.

4.3.2 측정동일성 측정결과

두 번째로, 공통된 요인부하량 및 오차공분산(E6, E5)의 측정이 추가된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검증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는 S - B χ^2 (207)=366.8390; CFI=.960; RMSEA=.056으로 양호하였다. 그러나 형태동일성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형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하락하여(Δ S - B χ^2 =65.6835, df=15),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변량(parameter)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LM Test 결과 남녀간에 요인3와 12번 문항에 차이가 있었는데(p<.001), 여성집단 결과에서 이미 요인2(F2)와 12번 문항(V12)이 교차부하된 점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었다. 즉,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남녀의 SNS 활용 구조에 있어 여성집단에서의 세부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4.3.3 구조동일성 측정결과

요인공분산의 차이를 검증하는 구조동일성 측정결과, 모형적합도는 S - B χ^2 (213)=371.2329; CFI=.960; RMSEA=.055으로 양호하였다. 형태동일성 결과와 비교한 측정동일성 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하락하였으며(Δ S - B χ^2 =70.0774, df=21), 요인3와 12번 문항에서의 차이가 있음(p<.001)이 보고되었다. 즉, 구조동일성 검증결과 남녀 집단간의 SNS 활용에 있어 구조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 확인되었다.

표 7. 집단간 요인구조 차이검증
Table 7. Tests for invariance of factorial structures

구분	SB χ^2	df	*CFI	*RMSEA
Configural	301.1555	192	.973	.048
Mesurement	366.8390	207	.960	.056
Structural	371.2329	213	.960	.055
구분	RMSEA 90% CI	* Δ S-B χ^2	Δ df	p
Configural	.037, .058	N/A	N/A	N/A
Mesurement	.046, .065	65.6835	15	<.001
Structural	.045, .064	70.0774	21	<.001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에 집단별 요인구조 결과가 도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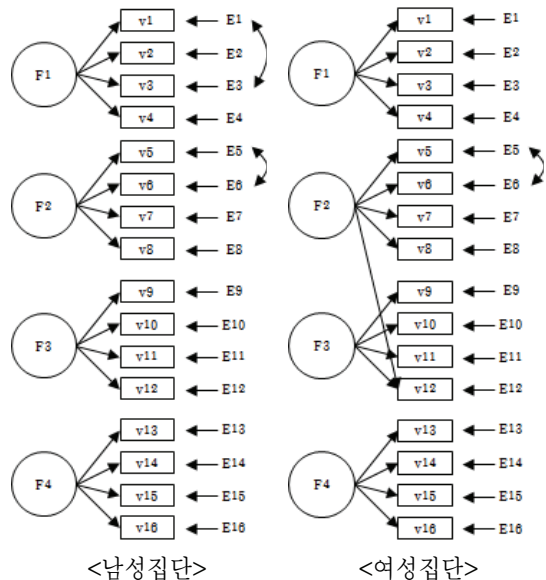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요인구조 결과
Fig. 1. The results of the factorial structures among groups

<그림 1>과 같이 남성 및 여성집단은 주로 관계도모, 정보유통, 협업, 피드백의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관계형성을 위한 검색 활동이 직접적인 교류로 이어졌고, 여성의 경우 정보를 교류, 유통하는 활동이 협업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정보제작활동은 공유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96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SNS의 활용유형과 성차를 구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 연구영역의 활용 및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특정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 성별 이외에 연령이나 전공과 같이 기타 변수에 대한 종합적 분석연구가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비교적 다수의 연구대상을 활용하여 남녀 SNS의 활용유형이 구체적인 수준으로 구조적 분석된 점은 향후 유사 연구영역의 활용 및 연구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모두 가설모형으로 제시된 SNS의 활용유형의 이론적 결과를 대체로 만족시켰다. 즉, 주로 관계도모, 정보유통, 협업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SNS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성 측정결과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남녀모형이 유의미하게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측정 및 구조동일성 검증결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모형수정 결과 남성집단은 관계검색과 교류활동, 그리고 제작과 공유활동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여성집단의 경우 남성집단과 유사하게 제작과 공유활동이 높은 상관성을 보임은 물론, 정보유통 요인이 지식 구성활동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드러낸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남성집단의 경우 관계검색 활동이

자료공유나 의사소통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정보를 제작, 작성하는 것은 이를 SNS 상에서 공유하기 위한 활동임이 남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집단의 경우 정보를 생성, 공유, 유통하는 행위가 상호간에 지식을 구성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아마도 SNS의 정보교류 활동이 여성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협업과 지식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집단은 대체적으로 관계도모, 정보유통, 협업 그리고 피드백 등의 유형에 따라 SNS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특정한 활동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SNS를 활용한 사용자들의 관계도모, 정보유통, 협업, 피드백 활동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월하고 직관적인 기능의 지속적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정보격차에 대한 시각이 접근성의 문제로부터 활용의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으로 전환될 요구가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SNS 활동의 문화현상 및 활동분석이 지속됨으로써 그 결과를 향후 성차에 따른 교육활용, 마케팅 등의 응용분야에 활용의 폭을 넓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A. Lenhart, & M. Madden, *Teen content creators and consumer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5.
- [2] M. S. Crocco, J. Cramer, & E. B. Meier, "(Never) mind the gap! Gender equity in social studies research on technolo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Multicultural Education & Technology Journal*, Vol.2, No.1, pp.19-36, 2008.
- [3]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networking_service

- [4] <http://news.yahoo.com/number-active-users-facebook-over-230449748.html>
- [5] <http://it.donga.com/14812/>
- [6] <http://en.wikipedia.org/wiki/Twitter>
- [7] <http://www.gartner.com/it/page.jsp?id=1454221>
- [8]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09 Internet Use Survey(No.12005)*, Seoul: KISA, 2009.
- [9]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1 Internet Use Survey(No.32902)*, Seoul: KISA, 2012.
- [10] K. Lim, M. Kang, & S. Shin, "The Study on Experts' Perceptions on Usage Elements of SNSs and the Investigation on the Priority of the Elements for SNSs' Educational Use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8, No.4, pp.925-952, 2012.
- [11] <http://www.un.org/millenniumgoals>
- [12]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GENDER/0,,contentMDK:20207786~menuPK:489311~pagePK:148956~piPK:216618~theSitePK:336868,00.html>
- [13] J. Cooper, "The digital divide: The special case of gender",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Vol.22, No.5, pp.320-334, 2006.
- [14] L. Shashaani, "Socioeconomic status, parents' sex-role stereotypes, and the gender gap in computing",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Vol.26, No.4, pp.433-451, 1994.
- [15] C. Gunn, M. McSparran, H. Macleod, & S. French, "Dominant or different? Gender issues in computer supported learning",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Vol.7, No.1, pp.14-30, 2003.
- [16] <http://www.josanders.com/pdf/gendertech0705.pdf>
- [17] H. Ch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use of SNS: Focusing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8] Q. Yi, *The gender differences study on Chinese netizens on the use of micro-blogging on "SINA WEIBO"*, Soonsi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9] S. J. Sin, & K. Kim,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he informational value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35, No.2, pp.107-116, 2013.
- [20] T. A. Brow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York, NY: The Guilford Press, 2006.
- [21] B. M. Byrn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EQS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6.
- [22] J. F. Hair, W. 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s.)*,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2006.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2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저자소개



임 결(Keol Lim)

1999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문학사)

2009년 Columbia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교육학박사)

2012년~현재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스마트러닝, 교육공학정책, 정보격차